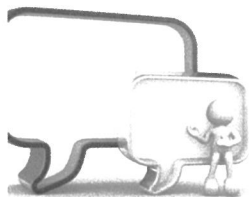


— 그건 이렇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GAP인증제도 이슈

9·10월호 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서의 저농약 인증 폐지와 그 대안인 GAP인증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 GAP인증제도 이슈

9·10월호 골판지포장물류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서의 저농약 인증 폐지와 그 대안인 GAP인증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전성을 인증해주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최초 도입되었으며, 현재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농약 인증의 경우 2009년 7월부터는 신규 인증을 중단되었으며, 2016년에는 완전 폐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저농약인증의 완전 폐지를 앞두고, 무농약인증 전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과수농가 등을 GAP로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농업계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GAP 확산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저농약인증의 대안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입니다. GAP가 저농약인증보다 낮은 수준의 친환경 기준을 요하기 때문에, 저농약인증의 GAP 전환은 ‘친환경농업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농약사용의 경우만 보더라도 저농약인증은 권장시비량의 1/2 이하로 사용해야 하지만 GAP는 농약안전사용 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제초제 사용도 허용됩니다.

구분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GAP
농약	×	×	안전기준의1/20이하	○
화학비료	×	권장량의1/20이하	권장량의1/20이하	○
제초제	×	×	×	○

그건 이렇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재배환경, 재배과정, 수확·수확 후 관리, 저장과정 중에 혼입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 생산 농산물에는 위해요소가 없거나 있어도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p>GAP기본교육(4시간) 이수 - 농산물을 안전하게 생산·관리하기 위한 교육</p>	<p>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및 준수</p>	<p>영농일지 작성 (생산정보 기록·1년 이상 보관)</p>	<p>농장 청결 - 환경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p>

= GAP 인증 기준 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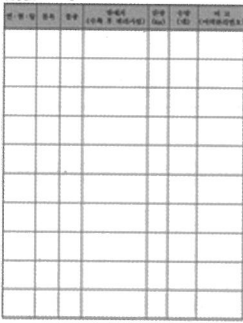
			
<p>유해화학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농작물 재배 (토양중금속 검사)</p>	<p>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농작물 재배 (수질검사)</p>	<p>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농작물 재배 (수질검사)</p>	<p>깨끗한 물을 사용하여 농작물 재배 (수질검사)</p>

= GAP 인증 기준 ② =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농약보관함 관리 (위험경고, 잠금장치)	화장실, 손세척 시설 (수확 후 관리시설)	위생적인 농산물 수확 작업

= GAP 인증 기준 ③ =

			
수확작업 용기 청결	농산물 유해물질 잔류검사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	위생적인 수확 후 관리 작업 및 작업장 청결	이력추적관리 (출하내역 기록 관리)

= GAP 인증 기준 ④ =

그러나 제도의 중요성 및 목표와 비교했을 때 제도의 확산 속도는 느린 편이나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GAP제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제도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보편적인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GAP 제도는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은 GAP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보편적인 GAP의 시스템의 확산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